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북변 라선 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큰물피해복구전투를 정말 잘했다고, 이번 전투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풍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 과정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것은 새집들이라고, 군인들이 인민들의 새집들이를 도와주는것을 비롯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귀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복의 그림처럼 펼쳐진 백학동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황홀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못내 기뻐하시

면서 이는 당에 대한 총정의 마음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적이라고, 자신께서는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인 인민군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긍지로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선시 피해복구전투는 전례없이 방대하고 아름다운 전투였지만 자신께서는 인민

군대를 굳게 믿었다고 하시면서 이 땅우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 인민군대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의 한페이지를 또 한번 자랑스럽게 썼다고, 우리 당 투쟁력사는 군대와 인민의 애국총정의 피와 땀으로 찍여지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을 잃고 한지에 나왔었던 피해지역 인민들에

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보니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새 집들을 받아안게 될 인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에 대한 인민들의 소중한 믿음을 지켜주고 당의 권위를 보위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건설에 참가한 전체 부대들에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